

절편녹용문제 해결 위해 뉴질랜드 간다

- GIB에 4차회담 제의, 뉴측에 우리측 입장 정식 전달 -

양국 정부간 급속도로 진행되는 절편 녹용 수입문제에 대처키 위해 우리측 생산자 대표가 직접 뉴질랜드를 방문키로 결정했다.

본회는 오는 6월25일 실시되는 제 5차 한뉴경제공동위원회에 앞서 뉴질랜드를 방문, 절편녹용 관련 양측 정부 실무자들과 생산자가 함께 하는 4차 회담을 실시, 한국 양록생산자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뉴질랜드양록위원회는 제 5차 한뉴경제공동위원회부터 4차 회담 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회는 4차 회담을 제안하는 공문(별첨자료 참조)을 뉴질랜드 양록위원회 및 우리측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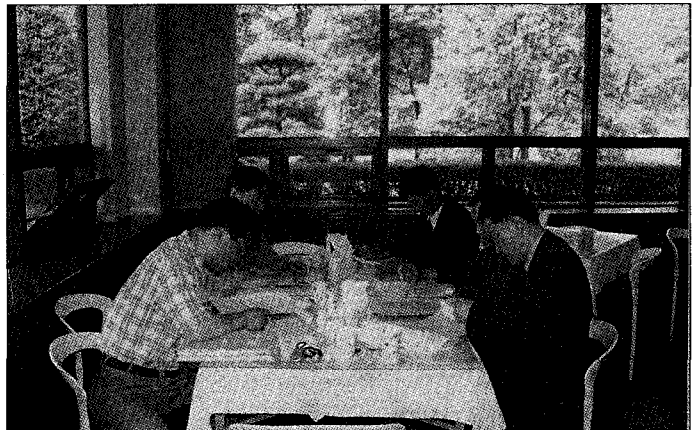
최근 뉴질랜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절편녹용 수입 문제를 조속한 시일에 해결해 달라는 서한을 직접 보내오는 등 내년 1월부터 국내로 절편녹용을 수출키 위해 부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번 한뉴경제공동위에서는 양국간 절편

녹용 수출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회는 절편녹용 수입협상이 국가간의 통상논리로만 진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단을 구성, 양국 대표단과의 면담을 비롯하여 뉴질랜드 양록위원회와의 협의, 뉴 정부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 피켓시위 등도 계획하고 있어 절편녹용과 관련된 한국 생산자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생산자 대표의 방뉴계획에 대해 우리측 정부관계자도 반기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한의약담당관실 박상표 사



▲ 지난 6월 1일 실시된 대정부 간담회



무관은 “이번 방뉴계획이 특별한 실익은
젓혀두더라도 한국 생산자 대표들이 절
편녹용과 관련해 뉴질랜드를 직접 방문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의미를 지
닌다”고 전제하며 “한국 생산자들의 절
박한 심정을 그들도 이해할 수 있는 계
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금번 방문을 전
망했다. 또한 “양측 생산자대표들끼리 협
의된 사항은 정부간 실무협상에 반영될
여지가 높다”며 뉴질랜드양록위원회와의
대화에 각별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표단 방문에서 본회는 GIB와
뉴질랜드 정부에 절편녹용의 수입 불허
입장을 다시한번 밝히는 한편 수입이
허용되더라도 최대한의 유예기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절편생녹용의 축
산물로의 수입만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가능하다면
이에 관련된 협의서 내지 협약서 등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뉴계획에 대해 본회 관계자는
“일년 중 녹용 절각철인 요즘이 가장 중
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손해가
다소 발생하더라도 뉴질랜드 의사대로
절편녹용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향후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번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 마련
을 위해 양록인들에게 협조를 구하기로
결정하고 전업농가 위주로 도움을 구할
방침이다.

◎ 별첨자료 1

수 신 : 뉴질랜드 양록위원회 회장

참 조 : MJ Roza 사장

제 목 : 절편녹용 시장개방 관련 회
담 제의

1. 한국 양록산업에 대한 귀 위원회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오는 6월
25일 귀국 수도인 웰링턴에서 개최되는
제 5차 한·뉴 경제공동위원회시 절편
녹용 수입허용 건이 주요의제로 다루어
질 예정입니다.

3. 특히 절편녹용 의제는 별도의 실무
회의를 통해 수입개방 일정, 품질기준
및 가공업소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
로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4. 본회는 지난해 회합시에도 밝힌 바
와 같이 국내농가 여건상 절편녹용 수
입개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편녹용 문제는 국가간 주요 통상문제
로서 한국 양록인들의 바램이 그대로
수용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지난 1월 서신에서도 제의한
바와 같이 귀 위원회와 녹용 생산자로
서의 공감대를 찾아 서로의 이익을 최
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고자 합니다. 또 귀 위원회와의 협의
결과를 양국 정부 대표단과 함께 검토
하는 4자회의(또는 비공식 간담회)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6.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간 공식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양측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정부 당국자들에게도 각국 양육산업의 실태를 보다 상세히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7. 본회는 이러한 제안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했으며, 이의 성사를 위한 최대한의 정부적 협조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본회가 구상하고 있는 회의는 우선 귀 위원회와의 1~2차례에 걸친 쌍무협상 후 양국 정부와 양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4자회의를 갖는 것입니다.

8. 지난 1월 귀 위원회 마크 오코너 과장을 통해 이미 귀 위원회의 4자회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와 차기 회의시 시행의사를 전해들은 바 있어, 회의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9. 본회는 6월 23일과 24일 2회 정도 귀 위원회와의 쌍무협의를 웰링턴 귀 위원회 사무실(또는 그 외 장소)에서 가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25일 또는 26일 양국 정부와의 4자회의를 가졌으면 합니다. 본회 회장단 등 3~4명이 일정에 맞추어 귀국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10. 위 내용들에 대한 귀 위원회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귀국 정부와도 4자회의 개최에 대한 협의를 가져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자료 2

수 신 : 농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참 조 : 축산경영과장, 한약담당관, 아태통상과장, 통상정보담당관

제 목 : 절편녹용 관련 한·뉴 생산자 회의 추진상황 통보

1. 귀 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오는 6. 25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되는 제 5차 한·뉴 경제공동위원회 절편녹용 실무회의시 양국 정부 및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4자회의(또는 비공식 협의회)를 갖고자 불임과 같이 뉴질랜드 양육위원회와 일정협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회는 대표단을 구성, 뉴질랜드 양육위원회와 별도의 회의를 가진 후 4자회의를 통해 한국 양육농가의 입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관련 뉴 양육위원회는 지난 1월 본회가 제안한 4자회의 적극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귀 부에서도 한·뉴 녹용 생산자간 대화 및 정부와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절편녹용 문제를 국익차원으로 원만히 해결코자 하는 본회의 취지를 참작하시어 회의성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뉴**